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베트남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019년 2월 20일 | 책임조사역(G3) 이자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331천 km <sup>2</sup> 	<b>인구</b> 94.58백만명 (2018기준) 	<b>정치체제</b> 사회주의 공화제 	<b>대외정책</b> 미국·중국과 균형외교 
<b>GDP</b> 2,414.34억 달러 	<b>1인당GDP</b> 2,552.82 달러 	<b>통화단위</b> Dong 	<b>환율(U\$기준)</b> 23,012.20 

-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중부에 위치하며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화국임. 1986년 대외개방을 표방한 '도이모이'(Doi Moi) 정책의 도입에 따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 30여 년 간 경제규모가 15배나 커졌음.
- 베트남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이자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및 정치적 안정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이며, 우리나라의 교역 및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정치면에서는 그간 당서기장 · 총리 · 국가주석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였으나 2018년 10월부터 응우옌 푸 중(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이 주석직을 겸하게 되었으며, 부정부패 척결 및 국영기업 개혁 등의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 ASEAN, RCEP 등을 통해 역내 경제통합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중국과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관계 악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12. 22 수교 (북한과는 1950. 1. 30)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93), 무역협정(1993), 투자보장협정(1993), 항공협정(1993), 이중과세방지협정(1994), 과학기술협정(1995), 원자력협정(1997), 사증면제협정(1999), 기술협력협정(2005), 무상원조협정(2009)

###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 품목
수출	32,630,457	47,753,839	48,628,513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수입	12,495,154	16,176,992	19,631,653	무선통신기기, 의류, 신변잡화

**해외직접투자현황(2018년 9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6,062건, 19,818,777천 달러

- **한국은 대 베트남 FDI 최대 투자국으로서 베트남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
- 1988년부터 2018년 12월 20일 까지 누적 집계된 국가별 대 베트남 FDI 투자 통계(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 베트남 직접투자규모는 7,459건, 625.7억 달러(전체 투자금액 대비 18.3%)로 최대 투자국임.
-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분야는 제조업(73%)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어 부동산업(14%), 건설업(4%)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6.0	6.7	6.2	6.8	7.1
소비자물가상승률	4.1	0.6	2.7	3.5	3.8
재정수지/GDP	-6.3	-5.5	-4.8	-4.5	-4.6

자료: IMF, EIU, 베트남 통계청

### • 내수소비 증가, 수출 확대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세 지속

- 베트남 경제는 2017년 전자·섬유 등 제조업 수출 증가세 지속, 외국인투자 확대 등으로 6.8%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 수출 증가, 서비스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7.1%의 성장을 시현하여 정부 목표치(6.7%)를 상회함.
- 2018년 1~3분기 실질GDP성장률은 6.9%를 기록하였으며, 4분기에는 7.3%로 성장세를 이어감. 2018년 GDP 성장의 부문별 기여도는 농·산림·어업 8.7%, 건설·제조업 48.6%, 서비스업 42.7%로 집계됨.

### •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

- 베트남은 원·부자재와 중간재 수입비중이 높아 원자재 및 곡물 국제가격, 동화(Dong) 환율 등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7년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상승,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5%로 전년(2.7%)대비 상승하였으며, 2018년에도 2017년 말 전기요금 인상 효과의 지속,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라 3.8%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나, 여전히 목표치(4%)이내 수준임. 2019년에도 상품 국제가격 인상 등의 영향을 받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0%로 상승할 전망이다.

### • 인프라 및 복지비용 등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 기조 유지

- 베트남은 경제성장과 원유생산 등 세수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 등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혜택 부여, 각종 인프라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17년 재정수지는 인프라 부문 지출 등으로 인해 관세수입 증가와 조세징수 개선 등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5%를 기록하였음. 2018년에도 인프라 개발 및 정부부채 이자 지급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GDP대비 -4.6% 수준의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 상 수 지	9,074	-119	5,924	5,401	5,225
경상수지/GDP	4.9	-0.1	2.9	2.5	2.2
상 품 수 지	12,126	7,396	14,013	11,495	10,180
상 품 수 출	150,217	162,112	176,632	214,135	240,629
상 품 수 입	138,091	154,716	162,619	202,640	230,449
외 환 보 유 액	34,189	28,250	36,527	49,076	54,053
총 외 채	70,600	78,200	89,400	108,400	121,000
총외채잔액/GDP	38.0	40.8	44.4	49.2	50.2
D.S.R.	3.4	3.8	3.6	4.8	4.7

자료: IMF, EIU, OECD

#### •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실적 개선으로 무역수지 흑자 시현

- 베트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수출 및 수입 모두 전년대비 각각 13.8% 및 11.5% 증가하였음. 특히 휴대전화·의류 등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실적 호조로 인해 무역수지가 7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경상수지는 GDP 대비 2.2%의 흑자를 시현함.

#### • 총수출 및 수출증가율의 증가세 지속

- 수출 호조에 따라 총수출은 GDP 대비 2014년 86.9%에서 2018년 106.8%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였음. 총수출증가율도 2016년 16.9%에서 2017년 29.1%로 상승하였으며, 2018년에도 19.3%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함.

## 외채상환능력

####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와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힘입어 외환보유액 증가세

-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191억 달러(집행 기준)로 증가하였고,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2018년 말 541억 달러 규모로 2017년 말(491억 달러) 대비 약 10% 증가하였음.
- 외환보유액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로 인해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규모는 2~3개월분 내외로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한편,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2017년 말 46.8%에서 2018년 말 42.5%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구조적취약성

### • 열악한 인프라 환경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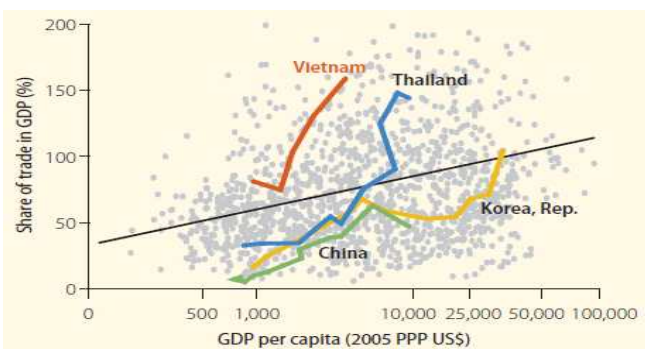
- 세계경제포럼의 2018년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프라 수준은 조사 대상 140개국 중 75위로, 특히 항만(78위)/전기공급(87위)/항공(101위)/도로(107위) 부문이 취약함.
- 도로·통신·편의시설 등 인프라 환경의 열악함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도 대도시의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GDP의 9~10%를 인프라 환경개선에 투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성장잠재력

### • 꾸준한 수출지향적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으로 수출 지속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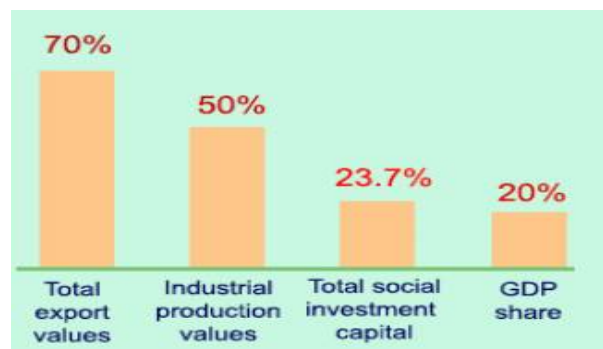
- 2018년 베트남으로 유입된 FDI 규모는 191억 달러로 전년대비 9.1% 증가하였음. 2019년 1월 유입된 FDI 규모도 15.5억 달러로 전년대비 9.2% 증가하였으며, 하노이·호치민·하이퐁 등 대도시 중심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
- 베트남은 무역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수출의 중요성이 높은 국가이며, 휴대폰 및 부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수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베트남 경제는 외국 기업이 원재료를 중간재를 수입하여 제조 가공한 후 이를 재수출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 1988년 베트남이 FDI의 본격 유치를 시작한 지 30년이 지난 현재 FDI는 GDP의 20%, 총 수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

GDP 대비 대외무역 비중



\* 자료: Worldbank, 베트남 기획투자부

베트남 경제내 FDI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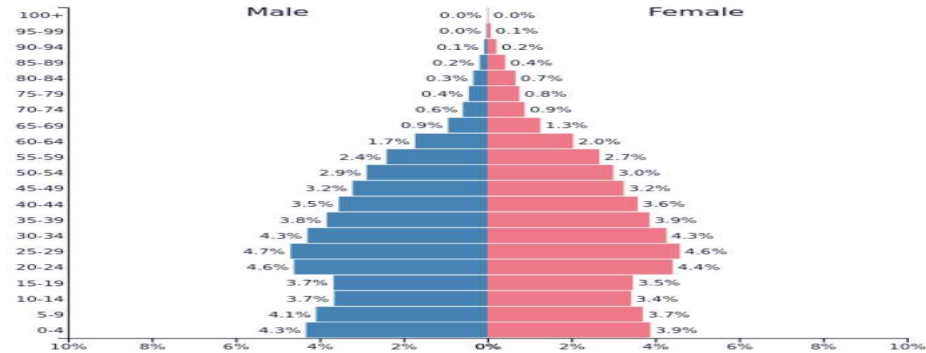


\*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

### •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구 1억 명에 이르는 소비시장 성장 기대

- 30세 미만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젊은 인구구조와 경제 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증가는 소비시장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됨. 베트남 정부는 2025년이면 총 인구가 1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함.
- 산업 발전에 따른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부동산 등 건설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

베트남 연령대별 인구 비중(2016년 기준)



\* 자료: PopulationPyramid.net

## 정책성과

### • CPTPP 비준안 국회 통과 (2018년 11월)

- 베트남 국회는 2018년 11월 '포괄적·진보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에 대한 비준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CPTPP는 2018년 12월 30일부터 기존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에 대하여 발효됨.
- 베트남은 전 세계 GDP의 14%, 무역액의 15.2%를 차지하는 CPTPP를 통해 자국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지속적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전략'에 관한 결의안 채택 (2018년 10월)

- 베트남은 총 3,260km에 이르는 해안선을 갖고 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100만km<sup>2</sup>에 이르러 해양 개발의 중요성이 높은 국가임.
- 제12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동 결의안에서 2045년까지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 성장을 통해 강력한 해양기반 경제로 베트남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함.
- 해양경제 부문은 2030년까지 베트남 GDP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안 지역 28개 도시 및 지방은 GDP의 65~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 국유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제효율성 제고 도모

- 베트남 정부는 국유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제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유기업을 2016년 기준 583개에서 2020년까지 103개로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 11월 말까지 147개의 국유기업을 민영화하여 성과가 다소 부진한 상황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구조개혁에 대한 거부감은 정부의 목표 달성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은 은행권 부실채권 감축 등 금융부문의 구조 개혁

- 2017년 8월 시행된 'Resolution 42'를 통하여 대출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은행의 담보자산 처분 절차가 신속해짐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또한 은행권의 합병을 도와 상대적으로 자산 건전성이 좋은 은행이 소규모 은행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적 개혁을 도모함.
- 베트남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은 2018년 말 1.9%를 기록하여 2016년 2.5% 및 2017년 2.0%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2018년 초 정부가 발표한 'Resolution 01'는 2019년 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을 2%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정치동향

- **2018년 10월 응우옌 푸 쯡(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의 국가주석 겸직으로 정치적 안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권력집중 우려**
  -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당서기장, 총리, 국가주석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왔으며, 제12차 공산당 전당대회('16.1월)에서 평화적 지도부 교체에 성공함.
  - 2018년 9월 21일 쩐 다이 꽁(Tran Dai Quang)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응유옌 티 도안(Nguyen Thi Doan) 부주석이 일시적으로 대행하면서 정권 승계와 관련하여 정치적 불안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10월 응우옌 푸 쯡(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이 국가주석을 겸직하게 되었음. 일각에서는 이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며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우려함.
  - 공산당 내 개혁파와 보수파 간 갈등이 존재하나 정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정도이며, 사회적으로도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대세력이 미약하여 상당 기간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사회동향

- **2019년 1월부터 사이버안보법 발효**
  - 베트남 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내용의 삭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고 있음.
  - 2016년 이후 점차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베트남은 금번 사이버보안법 시행으로 인해 '전제주의적 정보 통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강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6월 일시적인 반중 시위가 발생하였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
  - 베트남 정부가 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최장 99년 간 토지임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중국에 특혜를 부여하여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 하노이·호치민 등에서 반중 시위가 발생하였음.
  - 금번 시위는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에 따른 반중 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동남부 지역의 빈투언(Binh Thuan) 성에서 100여명을 체포하는 등 베트남 당국의 강경대응에 따라 대규모 소요사태로 번지지 않음.
  - 베트남에서 범치는 주로 도시 지역에서의 절도·소매치기 등의 형태로 발생하고, 대규모 형태의 시위는 거의 없는 편이며 치안은 대체로 비교적 양호한 편임.

## 국제관계

### •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접국들과의 유대관계 추진 지속

-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정부 차원에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캄보디아에서는 이주 문제로 인한 갈등 등으로 인해 베트남에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있음.

\* 2017년 10월 캄보디아 정부는 약 7만 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들(대부분 베트남인)에 대한 엄중 단속을 선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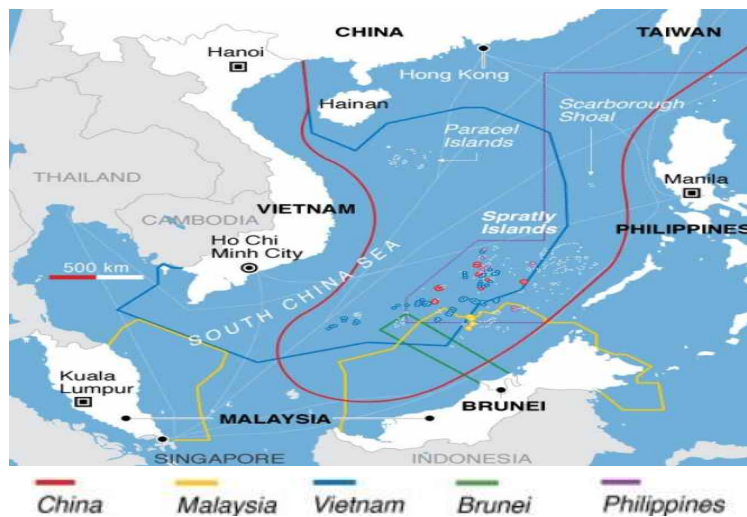
- 베트남은 라오스와 양국 지도자 간의 정치·경제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인식 공유 등 유대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2010년 라오스에 대해 중부 지역 하띤(Ha Tinh) 성에 위치한 봉양(Vung Ang) 항구 운항을 50년 간 허가함으로써 동남아시아 유일의 내륙국인 라오스의 바닷길을 열어주었음.

### • 중국과는 남중국해 문제로 인한 분쟁 지속

- 베트남은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오랜 기간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데, 동일 사안으로 역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분쟁 중인 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 등과는 달리 중국과의 갈등을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출해 왔음.

- 2018년 4월 베트남-중국 외교부 장관들 간에 남중국해 공동 개발에 대한 협상이 개시되는 등, 군사적으로 월등하게 우월한 중국도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현황



\* 자료: Voice of America

### •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일본·인도 등과 안보 동맹 강화 추진

- 베트남은 해양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일본 군함의 감란(Cam Ranh) 만 기항을 허용하고, 일본·인도·호주와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등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문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인도 등과의 동맹을 통해 지역 내 안보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정부도 동아시아에서의 중국 세력 견제에 베트남이 지닌 중요성을 인지하고 베트남을 동 지역의 주요한 정치·경제적 파트너로 대하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

- **중장기 차관 위주의 외채구조 등으로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총외채의 약 83.5%가 중장기 차관으로 구성되어 외채구조가 양호하며, D.S.R도 4% 내외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임.
  - 한편, 2018년 9월 말 기준 베트남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승인액은 단기 16억 달러, 중장기 98억 달러 등 총 114억 달러이며, 이중 미회수채권은 중장기 190만 달러(0.02%)에 불과하여 채무상환태도가 양호한 편임.
- **충분한 외환보유고 유지로 대외지급능력 양호**
  - 2018년 말 외환보유액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 경상수지 흑자 시현 등으로 인해 전년 말(491억 달러) 대비 증가한 541억 달러로 추정됨. 이는 단기외채 잔액의 2.1배 수준으로, 당분간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 (2018.06)	5등급 (2017.06)
Moody's	Ba3 (2018.08)	B1 (2017.04)
Fitch	BB (2018.05)	BB- (2017.05)

-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베트남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투자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2018년 중 신용등급 상향 조정**
  - 2018년 5월 Fitch는 높은 경제성장률, 외환보유액 증가 등을 감안하여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으며(BB- → BB), 동년 8월 Moody's도 경제성장 지속과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감안하여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함(B1 → Ba3).

- 베트남은 최근 연 6%대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하였고, 특히 2018년에는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호조 및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11년 만에 최고치인 7.1%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며. 내수시장 활성화, 국영기업 개혁, 은행 건전성 제고 등을 통한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 중임.
- 공산당 1당 체제 하에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한 상황에서 2018년 9월 쯔 다이 팡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2018년 10월 응우옌 푸 쯔 공산당 서기장의 국가주석 겸직으로 정치적 안정성이 제고됨.
- 젊은 인구구조 및 풍부한 노동력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고, ASEAN 내 주요 제조업 중심지로서 수출 확대 등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최근 경제성장세 지속의 영향으로 베트남 대도시 주민들의 구매력이 상승하여 민간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나,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과의 교역비중이 높고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베트남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등 하방 리스크 요인도 상존함.
- 우리나라는 베트남에게 해외직접투자(FDI) 최대 투자국이고, 베트남은 우리나라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ASEAN 지역 내 거점 중심지로서, 양국모두 서로에게 중요한 국가임.